

# 「학습자 중심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탐색」 토론문

박 상 철 (서울교육대학교)

이 글을 읽고 나서 토론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가리키는가’였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따라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통해 구현해야 할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를 때 그 정신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교육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대체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이나 지침을 찾는 일이라고 말해도 좋을 듯하다. 토론자가 아는 한 이 방면으로의 연구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의 다문화 교육과정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토론자가 기억하기에 그들이 내놓은 여러 연구물들은 학교 전체의 인적, 물적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 등 일련의 교육 절차가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따라 실행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이 지침의 형태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토론자가 파악하기에 이 글의 발표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국가수준에서 제시될 만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지침을 찾는 데 있는 듯하다.

토론자가 보기에 발표자 두 분은 (서양의 다문화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하듯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방향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대신에, 현재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나 지침, 이른바 ‘총론’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일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발표자 두 분이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지침들이 분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종류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일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다소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약간 자세하게 말하면, 총론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존의 여러 지침들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발표자 두 분이 제안한 몇 가지 지침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나아가 그 모습이 이전에 비해 교육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자가 파악하기에 발표자 두 분은 국가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지침(총론)을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일을 하는 한편, 그 방향과 지침을 학습자중심 교육의 정신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즉, 이 글에서 발표자 두 분은 (1)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에 따를 때 총론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 (2)학습자

중심 교육의 정신에 따를 때 총론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종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의 정신과 학습자중심 교육의 정신 사이의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 두 가지는 과연 의문의 여지 없이 양립 가능한가?

발표자 두 분의 원고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의 0.7%이다. 어떻게 보면 큰 수치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의 1%를 넘지 않는 작은 수치일 수도 있다. 토론자가 보기에,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의 99%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그 99%의 학생 또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대상이라는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른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정서적, 교육적인 면에서 여타의 학생들에 비해 무언가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 입각하여 그들만을 위한 모종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역차별 문제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주의 정신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이나 지침은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고로 그 강조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삶과 교육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강조점의 변화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